

중기부 ‘그린 스타트업 타운’ 공모에 광주역 재도전

지난해 천안에 석패...코레일 소유 부지매각 동의서 확보 등 약점 보완
선정팬 광주역 부활 마중물...“창업·혁신기업 유치, 신산업 성장 이끌것”

광주시가 철회한 광주역의 화려한 부활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공모에 재도전한다. 지난해 첫 도전에선 이동 인구와 교통, 교육·연구시설 등 주변 인프라 구축 등에서 앞선 천안역에 밀려 석패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르면 오는 3월 벤처·스타트업 육성거점으로 추진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예비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공모 참여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준비 중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모에서 천안, 구미 등과 경쟁을 벌였으며, 최종 천안역이 확정됐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청년 유동인구 등과 접근성, 대학과 연구단지 등 주변 인프라를 최우선에 두고 평가했으며, 입지확보 등 신속한 사업 성과 확보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역도 인근에 대학 등이 있고 사통팔달 교통 여건 등을 강점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부지를 최종 확보하지 못한 점이 큰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 같은 석패의 아픔을 교훈 삼아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부지 소유자인 코레일로부터

부지 매각 동의서를 확보하는 등 약점을 모두 보완했으며, 재도전에 나서기로 확정했다. 시는 이번 공모에 성공하면 오는 2023년까지 국비 등 500여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혁신지구인 광주역 일대 1만 3000여㎡ 규모에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혁신기업을 유치하고, 비즈니스·주거·문화·복지 등을 결합한 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와 입주보육, 연구개발 성과 공유 등이 가능한 창업기업 요람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시는 또 민선 7기 집중 육성 사업인 인공지능(AI)과 접목한 제조기술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중심으로 지역 신산업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고매를 마신 주 원인이 됐던 부지 확보 문제는 신속히 풀어야 할 숙제다.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 투자비와 별개로 전액 시비를 들여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공유지임을 감안하더라도 현 평가액 기준 평당 350만원으로, 총 200억원 안팎의 매입 비용이 예



광주시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대상지에 광주역을 선정, 재도전 한다. 사진은 광주역 전경.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상된다. 땅 주인인 코레일로부터 부지 매각 동의서를 받긴 했지만, 시의회 등과의 조율 과정에서 매입 시기가 늦춰진다면 토지비 상승에 따른 예산확보 등 각종 문제점이 불거질 수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을 반드시 유지해 광주역을 전국을 대표하는 도시

재생과 스타트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 확보 문제도 코레일을 설득해 매각 동의서를 받은 만큼 시의회에서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 동의한 해주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1천여명 신규 채용

광주시는 올해 1000여명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채용 인원은 지방직 상·하반기 795명, 청원경찰 8명, 시 공공기관 170여명, 시 공무원 30여명이다. 지방직 임용 규모는 시 383명, 자치구 412명으로 2019년(847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안 수요를 반영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직군별로는 행정 494명, 기술 271명, 연구·지도사 30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25명, 8급 31명, 9급 709명이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채용 규모도 2019년 127명, 2020년 143명과 비교해 가장 많다. 특히 그동안 소관 부서별로 추진한 광주 시청 행정 보조원 등 공무원 채용은 올해부터 통합 필기시험 후 서류 전형,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단계 간소화·다중시설 집합금지 최소화”

정부, 거리두기 개편 추진... ‘5단계→3단계’ 변경 거론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체계가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중수본은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1100개~1200개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3주간 확진자가 매일 1200명~1500명씩 발생해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 경제 피해를 우려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

다.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 구분 없이 각 시설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적)모임금지도 정식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편입시키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백신 접종 및 치료제 개발과 연계한 기준은 담기지 않는다. 기 교수는 사적모임 규제와 관련해서 안정적 현상이 유지되는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후 1단계 때는 10인 이상, 2단계 때는 5인 이상, 3단계 때는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남도, 감염취약시설 ‘선제 진단검사’서 확진자 1명 확인

전남도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주1회 실시중인 선제 진단검사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찾아내는데 효과를 발휘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통해 지난 밤사이 장흥 소재 요양보호시설 종사자 1명(전남798번)이 확진됐다. 장흥 거주 전남798번은 지난 13일부터 몸살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와 접촉한 일가족 3명과 돌봄서비스 이용자 1명 등 밀접접촉자 4명 모두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됐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확진자가 근무중인 요양보호시설은 이용자 53명,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33명으로 90여 명이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보호시설 이용·종사자와 이밖에 접촉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총 281명에 대한 검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4일부터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주1회 전수검사를 실시해 자칫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사전 차단 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총 9만2977명을 검사해 2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지역상품 디자인 개발 성과...매출 35% 이상 증가

전남도의 ‘지역 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지역기업의 지난해 온라인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실시됐으며, 품질은 우수하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상품디자인이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왔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자문 받아 브랜드 및 패키지디자인을 개발하게 된다. 이같은 결과 참여 기업 대부분의 매출액이 증가했고 해외로 진출한 기업도 많았다.

실제로 2017년 (주)장흥식품이 LA 상품판매장에 입점해 ‘햇콩마루 세트’를 판매한 결과 3만 달러 실적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땅끝햇살산영농조합법인 ‘아이스 고구마’, 농업회사법인 무화담의 ‘청무화과자’이 미국을 비롯 싱가포르·호주·필리핀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에는 농업회사법인 산들해(주)가 구운 유과를 개발해 미국 내 70여개 점포에 입점했으며, 전국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독자개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유기농차 등을 생산중인 보향다원도 올 상반기에만 1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 실적에 힘입어 수상 실적에서도 큰 성과를 보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악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종
-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장흥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협동조합 해산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1차)

장흥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협동조합은 2020년 11월 6일 개최한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흥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협동조합의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채무에 대해 변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신고대상자 : 장흥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협동조합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 신고기간 : 2021년 2월 19일~2021년 4월 19일

▶ 이의제출장소 :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7 장흥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협동조합 2021년 2월 19일 장흥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협동조합 청산인 김영현

분 할 합 병 공 고 (채권자의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그린일렉 (이하 "갑"이라한다) 와 주식회사 플렌 에이 (이하 "을"이라한다)는 2021년 2월 16 일 각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채산(영합)의 일부인 전기공사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분과 관련하여는 "을"이 승계하고, 상법 제530조의9의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인은 본 공고게제 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면허의 종류 : 전기공사업(등록번호:광주-01178) "갑" (영도인) : 주식회사 그린일렉 전라남도 신안군 담해읍 압해로 676-12 대표이사 유승중 "을" (영수인) : 주식회사 플렌케이 경기도 화성시 여유로4길 54 303-1호(농·농·우영빌딩) 대표이사 김순자

산행안내

2월 21 일(일) ▲광주Ki산악회 2월 21일(일) 경북 군위면, 야마산&왕가산 산행, 염주체육관 06:30, 동아병원 06:35, 롯데백화점 06:40, 광주역 06:45, 문예후문 06:55, 비엔주차장 07:00 * 다음

카페 광주Ki산악회 ☎ 010 7794 6920 2월 28일(일) ▲광주Ki산악회 2월 28일(일) 강원도 태백&백두대간의 중심 "함백산"산행, 염주체육관 05:30, 동아병원 05:35, 롯데백화점 05:40, 광주역 05:45, 문예후문 05:55, 비엔주차장 06:00 * 다음카페 광주Ki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